

스마트팜 신기술 도입 쉽고 빠르게

농진청, '농업용 앱스토어' 구축... 온실, 하나의 플랫폼서 한 번에 관리

딸기를 재배하는 A씨는 수년 전 조성한 자신의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연결하려다 비용에 놀랐다. 기존 회사 제품과 데이터(자료) 공유 방식, 규격이 달라 추가 비용 5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B기업은 인공지능 기반 환경 분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려다 벽에 부딪혔다. 최신 기술을 원하는 농가는 많지만 기존 제어기와 연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업체마다 다른 스마트팜 장비와 재배, 운영 기술을 하나로 통합해 보급할 수 있는 차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Ara Greenhouse)'을 개발했다.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팜은 개별 제어기와 개별 프로그램을 사용해 호환성이 낮다. 이런 이유로 통합 관리와 유지보수가 힘들고 새로운 프로그램



농촌진흥청은 업체마다 다른 스마트팜 장비와 재배, 운영 기술을 하나로 통합해 보급할 수 있는 차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진은 장비 간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선 방식의 데이터 통신을 유무선 방식으로 확장하고, 표준 데이터 코드와 사물인터넷 표준 통신 규칙을 활용해 (1) 스마트팜 장비

통합관리 기술 지첩을 만들었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응용 서비스를 하나의 앱(App)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앱 실행 프로그램과 이를 설치, 갱신할 수 있는 (2) '농업용 앱스토어'를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개별 장비를 별도 설치해야 했던 지금까지의 스마트팜 구축 방식을 통합 플랫폼을 통한 일괄 설치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는 장비 간 별도의 호환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면 동일 운영체제에서 자동으로 장비의 호환이 가능해 여기에 드는 비용을 약 40%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사후관리도 기기별로 제조사에 개별 요청하지 않고, 통합 플랫폼에서 갯신 파일을 내려받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농가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듯 농업용 앱스토어에서 필요한 지능형 관리 프로그램을 찾아 설치 후

사용함으로써 정밀 생육 관리로 생산성과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기업 역시 앱스토어를 통해 농가에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프로그램 품질 향상 등 유지관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개발자 공동체(cafe.naver.com/arapp)를 운영, 관련 기업들이 플랫폼을 활용해 상품 제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와 개발 문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며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 기업 10곳이 상용화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신기술시범 지원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소스코드란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하고 있는 텍스트 파일이며 오픈소스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필요한 소스 코드나 설계도를 누구나 접근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김옥기기자



전북농협은 13일 농촌진흥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알리는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전북농협,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

농진청서 고향사랑기부제·백설기 데이 알려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13일 농촌진흥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백설기 데이를 알리는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3월 14일 백설기 데이 맞아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은 농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설기 데이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백설기 데이를 알리고 고향사랑

기부 참여를 호소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3월 14일에는 백설기 데이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에도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우리 쌀 소비 촉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올해 도내 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릴레이 고향사랑기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큰 관심 층인 근로소득자들의 기부 참여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김옥기기자

전북자치도, 지역건설 수주 확대 위한 새만금입주 투자기업 본사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13일, 새만금산업단지 착공 예정인 (주)에이원신소재 본사를 방문하여 공장신축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생산자재·장비·인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주)에이원신소재는 이차전지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새만금산업단지 공장 신축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올해 2월말 현재 12조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등 기업의 본사, 연구소, 공장 신축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건설협회와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건설업체 합동 세일즈단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협회와 13일, 새만금산업단지 착공 예정인 (주)에이원신소재 본사를 방문하여 공장신축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생산자재·장비·인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을 구성하여 (주)에이원신소재 방문을 시작으로 3월말까지, 새만금산업단지에 착공 예정인 입주기업 12개 기업 본사를 방문하고,

이차 입주계약을 정식적으로 체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유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적기에 방문

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입주 투자기업 방문이 지역건설 경기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효과가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총합, 전문, 기계설비), 새만금입주기업이 함께하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김재훈기자

체결해 입주기업 공장 신·증축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산업단지내 공장신축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의 합동세일즈를 통해, 민간 합동세일즈단은 기존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새만금투자기업까지 지역건설업체와 이어질 수 있도록 대형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 갈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고급리와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세일즈 활동을 폭넓게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경진원, 시험분석·품질인증획득 지원 참여기업 모집

전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진흥원)은 2024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의 1분기 참여기업을 20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은 도내 소기업의 생산제품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해 도내 제조시설을 갖춘 50인 이하 소기업 40개사 정도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시험분석 지원은 소기업 제품의 성능이나 성분검사 또는 분석, 신뢰성 평가 등 평가·분석비용의 80%(부가세 제외)를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2백만원을 지원한다.

품질인증획득 지원은 시험분석을 통해 검증된 성능을 KS, KC, Q마크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 조달우수

인증 등 제품 품질에 대한 공식인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80%(부가세 제외)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횟수는 연간 최대 2회, 다분석건의 일괄신청이 가능하며, 시험분석 지원과 품질인증획득 지원 중 택1하여 지원가능 하다. 사업참여와 관련 자세한 정보는 진흥원 홈페이지(hta.kr)에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 윤여봉 원장은 "도내 제조업체 중 영세 소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다"라며, "올해도 지역경제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소기업들의 혁신기반 구축과 경쟁력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2024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은 매 분기(3/6/9/11월)마다 40~50개사 정도의 규모로 참여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경영위기 극복' LX전북본부, 행정·고객담당 스킬업 교육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본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24년 행정·고객 담당 스킬업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LX 비전 및 핵심 가치 내재화를 통

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능동적 노력의 하나로 마련됐다.

교육은 관내 12개 지사 고객 및 행정 담당자가 참석하며, 이들은 LX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역할에 관해 논의한다.

이후 마케팅, 고객만족(CS)경영, 안전·보건, 측량수수료 사업관리 및 예산·회계 관리 등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교육이 이어진다.

박종화 LX 전북본부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원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